



內 實 即 權 限

柳 東 烈*

우리나라에 空氣調和, 衛生 및 冷凍技術이 導入, 適用된 것은 半世紀 以上の 歲月이 흘렀다고 짐작된다. 解放前에 이미 現代의인 製氷工場이 建設運營되었고, 建物設備面으로 보더라도 効率的인 暖房, 衛生設備을 갖춘 것으로서 現在까지 異常없이 運營되고 있는 예를 쉽게 찾을 수 있다. 空氣調和設備에 있어서도 現 第一銀行 本店建物과 같이 1930年代에 設計 施工되었던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 分野에 있어서 우리힘으로 直接, 多様하게 그리고 本格的으로 活動을 開始한 것은 收復後의 일이라고 생각된다. 建物設備에 있어서는 現在 10,000坪 以上の 大規模의 建物を 우리손에 依해 設計, 施工 및 運營되고 있는 예를 許多히 볼 수 있으며 그 技術水準 亦是 外國에 비해 그다지 손색이 없다 하여도 過言은 아니다. 또한 冷凍分野에 있어서도 解放前의 「암모니아」方式 一色에 비해 「프레온 方式」의 導入, 그리고 大型 冷凍冷藏倉庫로부터 小型 家庭用 冷藏庫에 이르기까지 冷凍技術이 우리生活周邊에 깊숙히 浸透되고 있음은 잘알고 있는 事實이다. 이와같이 우리分野와 우리技術은 經濟成長과 발맞추어 最近 着實하게 成長해 왔고 또 이런 基調가 계속되리라는 것을 누구나가 確信하여 마지 않는 바다. 그러나 모든 것이 움직이고 變化하는 가운데 빠르게 움직이면 休息을 取해야하듯이 昨今의 우리나라 經濟도 이러한 양상으로 解析해야 옳지 않을까 생각되며 우리 分野도 지금 어떤 分水嶺에 와 있음을 피부로 느끼지 않을 수 없다. 一般의으로 일은 줄어 들었고 與件은 惡化되어 있다. 이런 時期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 우리가 어떤 使命感을 느끼고 個人的 進退를 이에 歸屬시킨다면 이때에 우리나라를대로의 體制를 가다듬어 事態에 適應하며 나아가서 外部에 積極作用할 수 있는 土전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해야할 일 중에서 먼저 생각되는 것은

첫째 우리는 個人的으로 內實해야겠다는 點이다. 技術의 모방 吸收단계때문에 또 基本的인 經濟生活를 確保하는데 바빠서 그 必要性을 別로 認識하지 못하였는

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 業界 個個人的인 技術的 및 一般的 敎養水準을 外國의 그것과 比較할 때 분발해야될 點이 너무나 많다고 自覺해야 할 것이다. 이런 意味에서 個個人을 國際의 水準에 올려 놓기 爲한 各自의 非常한 研究努力이 계속되어야 하겠다. 業界는 個人이 踴여서 形成되는 것이므로 모든 일에 앞서 먼저 個人的인 資格을 높여야 함은 再論할 餘地가 없을 것이다.

둘째 우리는 創造的이어야 한다는 點이다 現在까지의 우리의 活動은 外國技術의 直接 혹은 間接的인 影響아래 多分히 모방적인 狀態를 免할 수 없었던 것이 事實이다. 이는 技術發展의 段階에서 꼭 必要한 것 또한 事實이다. 그러나 이런 段階를 넘어설 수 있을 만큼 充分히 多樣한 일을 해왔으므로 이를 消化해서 다음 段階로 올라설수 있다고 믿으며 또 그래야만 하겠다. 外國의 경우를 보면 空調, 衛生 및 冷凍等 各 分野에서 多分히 그 國家固有의 方式과 方法을 가지고 있는 것이 通例이며 또한 當然하다. 우리도 우리의 體質과 事情에 맞는 創造的인 方法을 모색하여 發展시켜 나아가야만 하겠다.

셋째로 하루 바삐 零細性을 벗어나야 하겠다.

外國에서도 혹은 一人會社가 存在한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一人會社가 더 當然한 것같이 普遍化되어 있다고 느낄 程度로 會社組織이 零細性을 먹고 있다. 勿論 一人會社의 경우 그 能力을 實力 以上으로 發揮할 수 있고 또한 浪費가 없다는 點에서도 가장 効率的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너무나 經濟第一主義로 흐르는 바람에 技術의 研究向上, 後進의 養成等面에서는 거의 公認할 수 없는 缺點을 指摘할 수 없다. 勿論 經濟 및 市場性 自體가 크지 못하므로 外國과 같은 大型會社의 出現은 期待하기는 困難하다. 그러나 可能한 限, 會社 組織을 擴大함으로써 大型會社의 利點 即 研究開發에 힘쓸 수 있는 餘力의 具備 및 福祉의 分散平等化等을 充分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것이 切實히 要望되는 우리의 責任과 義務라고 定義한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받은 社會的 待遇 乃至 權限을 생각안할 수 없다. 누구나가 너무나 빠

* 正會員, 三新設備研究所

저리게 느끼는 것은 過去와 같은 희생一邊倒의 處遇를 하루 바빠 改善해야 하겠다하는 點이다. 우리가 零細性を 免치 못하고 있으며 또한 內實치 못한 것도 들이켜 보면 過去의 희생이 너무나 컸다는 것을 反證하는 것이라거나 할까?

우리業界에 從事해온 사람은 남에게만 좋은 일을 너무나 많이 強要當하여 왔다. 또 우리는 남못지 않게 일하면서 그 存在조차 나타낼 수 없었다. 그러나 우리業界도 이제는 다른 業界와 比肩할 만큼 成長할 段階에 있고 또 우리를 代辯해 줄 團體도 만들었다. 이제는 우리의 存在를 社會에 알리고 따라서 희생만이 아닌 우리의 正當한 待遇를 堂堂히 主張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

무릇 모든 權利는 積極的으로 爭取해야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分野가 處해 있는 特殊性을 勘案하면 積極성이 오히려 關聯業界의 非協助 乃至는 마찰을 誘發하여 오히려 不利한 立場이 될 염려가 있다. 現在處地로서는 우리가 먼저 實力을 닦아 남이 스스로 認定하고 尊重해 주는 間接的이며 民主的인 方法으로 유도하는 것이 오히려 切徑이라 하겠다.

위에서와 같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許多하다. 우리 스스로 內實하여 內外的으로 作用하며 그 果實로서의 待遇 乃至는 權限을 確保하며 이를 바탕으로 다시 跳躍하는 마음가짐과 態勢를 꾸준히 그리고 誠實하게 履行해야 할 것이다.

發 刊 豫 告

機 械 設 備 標 準 示 方 書

— 目 次 —

第 1 編	一般共通事項
第 2 編	衛生設備工事
第 3 編	空氣調和設備工事
第 4 編	乘降機設備工事
第 5 編	가스設備工事
第 6 編	우물設備工事
第 7 編	淨化槽內部設備工事

發賣豫定	7月 下旬
價 格	會員 700원 非會員 900원
發 行 所	社團法人 空氣調和・冷凍工學會